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



행복하게

보도	2023.11.28.(화) 15:00	배포	2023.11.28.(화)		
담당부서	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윤영준	(02-3145-7790)
		담당자	부국장	김경수	(02-3145-7770)
	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원희정	(02-3145-7680)
		담당자	팀 장	손인수	(02-3145-7510)

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·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3.11.28.(화) 41개 보험회사 감사·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
-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

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3.11.28.(화) 15:00~16:00
- ☑ 장 소 :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, 생명·손해보험검사국장
(생·손보험회) 전략기획본부장, 기획관리본부장
(보험업계) 41개 국내 보험회사 감사·준법감시인

II 주요 논의내용

1 보험회사 금융사고 현황

- 보험회사가 '18년 이후('18.~'23.6.)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.5건, 88.5억원으로
 -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,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·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
'18년~'23.6월중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

(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	'18	'19	'20	'21	'22	'23.上	합계	연평균 ('18~'23.6)
생보사	건수	9	8	10	7	4	2	40	7.3
	금액	25.6	8.4	21.5	9.5	2.6	2.1	69.6	12.7
손보사	건수	7	7	9	10	5	2	40	7.3
	금액	9.7	256.3	122.4	18.0	10.8	0.2	417.4	75.9
합 계	건수	16	15	19	17	9	4	80	14.5
	금액	35.3	264.7	143.9	27.5	13.4	2.3	487.0	88.5

2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업무 현황

-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.8%이고, 이 중 전문인력*은 72.0% 수준

* 법률(19.4%), 재무·투자(14.1%), IT(4.6%) 등

-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,
 -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,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됨

-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, 명령휴가, 내부 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,
 -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,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

[주요 사고예방조치 점검 결과]

- **(순환근무)** 순환근무 예외 허용 사유가 자의적이고, 미이행시 조치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장기근무 비율이 높은 수준
- **(명령휴가)** 대부분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가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
 - 대부분 회사에서 미이행시 조치근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 우려
- **(내부고발)** 대부분 포상규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, 세부 보상 기준·절차 등이 없어 내부고발 활성화 조치로는 미흡
 - 내부고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
- **(금융사고 예방지침)** 관련 내용이 내규에 산재해 있고, 예방대책은 원론적·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미흡
 - 상당수 회사는 사고 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예방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

-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
-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 및 '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,
-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,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,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

[내부통제 강화 방안(요약)]

가.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

- 회사 특성,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(전문)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
-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,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,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

나.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

- **(순환근무)**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
- **(명령휴가)** 대상 및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,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- **(내부고발)**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 조성
- **(사고예방대책)** 직급별·업무별 역할과 책임 체계화,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

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전 보험회사에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,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
 -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('23.12월 예정)하여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임
- 또한, 생·손보험협회,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며('24년 상반기)
 -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·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

※ [별첨]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모두발언 1부